

전남도, 상습가뭄 농경지 연 20만톤 물 공급 추진

김 지사, 장성호 가뭄대책 점검
관계기관과 물 관리 대책 공유
농식품부 농촌용수개발사업 선정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본격적인 영농철이 다가옴에 따라 26일 나주, 함평, 장성 등에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장성호를 방문, 가뭄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농업용수 사전 확보 등 영농에 차질 없도록 특단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이날 현장에는 한국농어촌공사와 장성군 관계자가 함께해 물관리 현황과 향후 대책 등을 공유했다.

김영록 지사는 “올해는 지난해부터 가뭄이 계속돼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가장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하천용수나 저수지 중 저수를 여유가 있는 지역을 우선 사용하는 방안 검토”를 관계기관에게 요청했다.

전남도는 현 저수율로 5월 모내기까지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망되나 5월 말까지 비가 내리지 않으면 6월 영농기에는 용수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7-8월부터는 벼를 밭옥시키는 시기로 물이 부족하면 벼 생육에 지장을 줄 수 있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26일 장성함을 방문, 김한중 장성군수로부터 가뭄으로 인한 농업용수 공급상황 등을 청취하고 취수탑 등을 둘러보고 있다.

다. 전남도는 농업용수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저수지 물 채우기, 관정 개발, 양수장 설치 등 가뭄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농림축산식품부도 전남도 등 수리시설이 열악해 상습적인 물부족 현상을 겪고 있는 농촌지역에 농업용수를 안정적

으로 공급하기 위한 농촌용수개발사업 사업 대상지를 공개했다.

전국 8개 신규지구와 기본조사 12개 지구 선정됐으며 전남에선 신규지구 2개소와 기본조사 1개소가 포함됐다.

농촌용수개발사업은 가뭄상습지역에 저수지, 양수장, 용수로 등 수리시설을 설

치하고, 농어촌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농업·생활·환경용수 등 다목적 용수를 확보해 공급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전남 등 전국 8개 지구에 총 사업비 5150억원이 투입된다. 이들 지구에 수리시설을 새로 조성하거나 증설하고, 기존 수리시설과 연계해 지역 간 물수

급 불균형을 해소할 계획이다.

사업을 완료하면 수리시설이 미흡하거나 지하수 관정 등에 의존하던 상습 가뭄 농경지 6769ha에 하천유지용수를 연간 20만톤을 꾸준히 공급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올해 공사 중인 52개 지구에 농촌용수개발사업 예산 2822억원을 투입해 조기 완공하도록 지원하고 올해 말까지 7지구 2053ha를 준공해 내년부터 농업용수를 본격 공급한다.

한편 이날까지 광주·전남 지역에선 지난해 누적강수량 844mm(평년대비 61%), 올해는 누적강수량 93mm(평년대비 73%)를 기록했다.

기상관측 이래 최악의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 23일까지 이틀간 평균 21mm(최고 여수 34mm·최저 함평 11mm)의 단비가 내렸으나 가뭄 해갈에는 여전히 부족하다.

실제로 전남지역 농업용 저수지 총 3208개의 평균 저수율은 54.7%로 평년의 84.3% 수준이다. 특히 도내 저수율의 40.8%를 차지하는 나주·담양·광주·장성호 등 4대호 저수율은 37.9%로 도내 평균 저수율을 밑돌고 있다.

최황지 기자 hwangji.choi@jnilbo.com

전남 농·공산품 시장개척단 '201만 달러' 수출계약

농수산식품 기업 등 15개 사
싱가포르·말레이시아 계약

전남도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전남 지역본부와 지난 24일까지 5일간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에 시장개척단을 파견해 201만 달러 수출계약 성과를 거뒀다.

26일 전남도에 따르면 문금주 행정부지사가 이끈 시장개척단에는 도내 농수산식품 기업 9개사와 케이(K)-뷰티 등 공산품 기업 6개사가 참여했다.

이들 중소기업 15개 사는 119개 현지 수입상과 1대1 상담을 통해 3829만 달러 수출 상담과 201만 달러 수출계약을 했다.

김 전문 기업 (주)해농은 싱가포르에서 30만 달러, 말레이시아에서 50만 달러의 수출 업무협약을 했다.

말레이시아 수출 상담회에선 광어죽, 전복죽 생산기업 (주)해성인터내셔널이 100만 달러, 발전설비용 신축이음관 제조기업인 (주)디엠티가 10만 달러, 유기질 비료를 제조하는 봉강친환경이 8만 달러, 리사이클링 조미김과 미역을 생산하는 해산이 3만 달러 수출 업무협약을 통해 말레이시아 시장 진출 발판을 마련했다.

문금주 전남도 행정부지사는 “전남 수출기업의 수출 확대와 신시장 개척을 위한 노력이 결실을 거둬 기쁘다”며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 시장개척단 성공은 지역 기업의 세계 경쟁력과 품질을 입증한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지속되는 세계적 경기침체에 따른 어려움에서도 도내 중소기업이 세계 시장에 활발히 진출하도록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최황지 기자

광주시, 행안부 '특별지자체 설치 컨설팅 대상' 선정

지방소멸 대응·경쟁력 강화 등
특색있는 광역 사무 발굴 기대

광주시는 행정안전부 주관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맞춤형 컨설팅 사업 대상에 선정됐다고 26일 밝혔다.

특별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특정 목적을 위해 광역으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설치하는 지방자치단체 법인이다.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지난해부터 새롭게 시행된 지자체 간 협력제도다.

광주시는 4월부터 진행되는 컨설팅을 통해 지역 특색에 맞는 사무와 권한 발굴, 기관 구성 등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방

안 마련을 위해 행안부 등 중앙부처와 머리를 맞댔을 예정이다.

광주시는 광역행정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중복투자와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교통·SOC, 산업·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광주·전남 지역 현안과 숙원사업을 대규모 국책사업과 연계한 초광역 투자협약 사업으로 추진, 미래 호남권 발전을 위한 새로운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지난해 7월 광주전남상생발전위원회에서 광주전남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를 합의한 바 있다.

광주시는 초광역협력 사무 발굴을 위해 광주테크노파크와 올해 1월 업무협약을 맺었으며, 2월부터 학계·연구기관 등 전문가로 구성된 전담팀을 운영하고 있다.

배원권 광주시 기획조정실장은 “컨설팅 결과를 바탕으로 시·도 협의와 의회 소통, 시민 의견 수렴 등을 진행하면서 특별 지자체 설치내용과 추진시기 등을 조율하는 등 단계적 절차를 밟아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컨설팅 이후에는 시·도 협력의 모범사례를 창출하고 타 권역과도 협력하는 등 지역발전은 넘어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상지 기자

시·도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 손 맞잡았다

광주시·전남도·양향자 국회의원
LG이노텍 상생협력과 업무협약

광주시와 전남도·양향자 국회의원·LG이노텍(주) 국가위기 극복과 지역의 첨단 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26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24일 강기정 광주시장, 김영록 전남지사, 양향자 국회의원, 정철동 LG이노텍(주)대표이사 참석해 가운데 국가위기 극복 및 첨단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상생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은 온라인을

통한 영상으로 진행됐다.

4개 기관·기업은 지방소멸·에너지·기후변화 위기 극복과 함께 광주·전남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 입법활동 지원 등에 상호 긴밀히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강기정 시장은 “지자체·기업·입법기관이 함께 손잡은 이날 협약은 지역의 발전과 국가 전반의 경제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국가첨단전략산업은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중요한 지렛대로 함께하는 광주와 전남은 새로운 시대 도약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록 지사는 “양향자 의원, 글로벌기업인 LG이노텍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대단히 기쁘고 든든하다”며 “국가 위기 극복과 첨단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광주와 전남이 상생의 힘으로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민선 8기 상생 1호 협력사업으로 시·도 접경지인 첨단 1·3지구 일대에 시스템반도체용 차세대 패키징 특화단지를 조성, 대한민국 미래 100년을 선도하는 첨단전략산업 중심지로 도약한다는 구상이다.

박상지 기자

전남도 '해외 관광객 300만명 유치' 총력

태국·베트남 전세기 유치
대형 여행기업과 업무협약

전남도가 해외에서 국내 여행상품을 판매하는 대형 여행기업과 업무협약을 통해 해외관광객 300만명 시대 개막을 위한 관광상품 출시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26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21-22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개최한 '전남 방문의 해 시즌2 서울페스티벌' 기간 롯데제이티비(주), (주)모두투어인터내셔널, (주)하나투어아이티씨와 '전남도 해외 관광객 유치 여행상품 운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전남도는 해외 관광객 유치와 무안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해 태국과 베트남에서 잇따라 전세기 유치 협약을 한데 이어 해외 여행객을 모집하는 국내 여행기업이 전남 관광상품 판매에 적극 나서기로 해외 관광객 유치에 탄력을 받게 됐다.

실제로 이번 협약에 따라 각 여행사는 주력 해외 관광시장을 대상으로 여행상품을 개발해 모집 활동과 마케팅을 적극 전개하기로 했다.

전남도는 이들 여행사의 성공적 전남 여행상품 운영을 위해 행정 편의 제공과 차별화된 해외 관광객 인센티브를 지원할 계획이다.

롯데그룹의 여행기업인 롯데제이티비는 일본을 포함한 유럽, 남미 등 개별 관광객(FIT)을 위한 '전남 버스투어 여행상품'을 오는 7월 출시할 계획이다.

모두투어인터내셔널은 대만 관광객을 대상으로 전남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3월부터 중국발 입국자 종합효소연쇄반응(PCR) 검사가 면제되면서 중국 관광객이 본격적으로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관광객에 특화된 고품격 여행상품을 개발하고 홍보·마케팅 활동에도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최황지 기자

전남도, '사무관리비 사적 사용' 고강도 전수조사 착수

전남도는 최근 '사무관리비 예산의 사적 사용 문제'를 제기한 언론보도와 관련, 고강도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26일 밝혔다.

전남도 감사관실은 각 실국, 실과별 전

수조사를 통해 사무관리비 사적이용과 금융유용 여부 등을 파악하고 있다.

감사 결과 드러난 문제에 대해서 절차에 따른 징계를 하고 향후 발생 예방을 위해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

최황지 기자